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❺ 선승의 출가

▶한줄요약
출가는 불교 수행에서 근본이 되는 행위로서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결단에 닿는다.



수행 목표 결정하는 출가 동기 '중요'

1. 출가담

요즘 출가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문을 닫게 된 강원도 있다고 한다. 출가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세태가 삶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애욕을 단호하게 끊는 것을 어렵게 한 탓일까. 불교 공동체가 젊은 구도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탓일까. 아무튼 출가의 문제는 세속과 초세속 사이의 '가고 옴'이란 형식적인 면뿐 아니라 거기에 깃든 정신과 의미까지 살펴보게 만든다. 그와 관련되는 안타까운 점들을 성찰하고 참회하기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선승의 출가담을 읽어본다.

출가는 불교 수행에서 근본이 되는 행위로서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결단에 닿는다. 출가의 목표는 출가자 자신 뿐 아니라 뭇 중생의 팔고(八苦), 생로병사(生老病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목표가 처음부터 분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다. 초발심 그대로가 정각(正覺)이니, 완전한 출가는 초발심에 철저하여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출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출가 후에 더 치열하게 수행하여 출가를 완성시켜가야 한다. 그 단계를 나눈 것이 소위 삼종출가(三種出家)이다. 첫째,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셋째, 생사윤회의 세계인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집을 벗어나는 것[出三界家]이다. 첫째에서 셋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가고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속에도 초세속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제도를 자유자재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출가가 세속의 애욕과 팔고를 철저히 잘라버리는 것을 지향하지만, '출가'라는 말에는 이전까지 해오던 일들을 '줄여' 나간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즉,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들 중에서 일정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가치 있고 귀중한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 출가를 하면 더 좋은 수행의 여건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계율도 출가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자기 한 몸만을 위해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으며 계율을 지키고 아란야에 살면서 해탈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 출가라 할 수 없다. 크게 정진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고 계율을 깨뜨리는 이로 하여금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하고,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들을 잘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여 광대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자비희사)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고 일체 중생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야 비로소 참 출가라 할 수 있다."

효봉 스님이 출가와 관련하여 들려주신 말씀이다. 출가할 때부터 중생제도를 생각하고 출가하여 수행할 때도 시종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려는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고 하신 효봉 스님의 이 말씀은 수행자들이 길이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공경하고 따르면서도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출가자 자신이 겪은 사연과 비원을 외면할 수가 없다. 많은 출가자는 거룩하고 간절하며 기구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들만의 출가 동기를 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출가 동기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단속하고 수행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계율 못지않게 수행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출가 동기는 다양하다. 부처의 법을 듣고 믿게 됨, 부처의 위덕(威德)을 보거나 듣고 믿게 됨, 비구나 장로에게 법을 들음, 세속에 거주하며 사는 생을 혐오하게 됨, 부처나 다른 비구의 신이한 변화를 봄, 자식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에 대해 환희심을 경험함, 아들을 얻는다면 출가하겠다고 부모가 서언함, 타인의 출가를 보고 감동함, 부처의 법을 듣고 이미 아라한이 되어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됨 등이 출가 동기로 소개돼 있다. 그 외 수명을 더 받기 위해서나 군역이나 형벌, 노예신분 등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한 출가는 초발심 정각
대부분 출가 불완전한 출가
치열하게 수행해 출가 완성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까지 비구니의 출가 동기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남편 잃고 수절하기 위함, 수행과 구도를 간절히 기원함, 가난이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함, 주인의 강요를 받음, 사후 하늘나라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함 등이 두드러진 출가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수절을 제외한 나머지 출가 동기는 비구의 출가동기도 될 것이다.

선승의 출가 동기도 이와 유사하지만 특정 동기가 부각되기도 한다. 세속의 변화무쌍함과 중생의 고통번뇌를 출가 전의 선승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선승에게는 탄생과 앞날을 예시하는 태몽이 인상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선승과 그 부모는 태몽을 떠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신비한 태몽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갔던 선승이 출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태몽에서 출가로 연결되는 지점에 균열이 생겨나기도 했다. 선승이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세속의 경험 때문이다. 죽음이나 가난, 사회적 갈등 등 더 직접적인 상황이 출가 동기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 태몽과 유년의 행실 그리고 출가

근대 이전에 세워진 비석 비문의 주인공은 주로 '국사'나 '선사', '대사'로 추앙되고 임금에 의해 시호가 내려진 선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승의 집안은 대체로 지방 호족으로부터 귀족이나 왕족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경이로운 태몽은 권세 있는 집안 혈통의 상징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 선승의 태몽은 민속적 기반과 불보살의 계시, 부모의 기자정성, 간절한 수행 정신 등과 연관이 있는 것이니, 그 내용을 계층적 우월감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문에서는 '태몽-탄생-유년-출가'로 이어지는 과정이 도식에 가까운 긴밀성을 보인다. 이 점은 〈삼국유사〉나 〈해동고승전〉 등 문헌의 고승전이 보여주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선승의 비문은 태몽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아기 선승이 탁월한 능력을 가질 것이며 전생 수행의 선업을 한 몸에 계승할 것임을 암시한다. 아기 선승이 태어나서 자라며 보이는 특별한 행실과 지극한 불심은 태몽이 계시한 바의 결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단계의 출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효봉 스님 진영.

대부분 선승들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마침내 출가하기에 이르는 과정이 비문에서 비슷하게 기술되지만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진감국사(眞鑑國師) 혜소(慧昭, 774생),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哲, 785생),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 804생), 법경대사(法鏡大師) 경유(慶猷, 871생) 등에서 그 전형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진감(眞鑑, 774년)국사의 태몽은 한 범승(梵僧)이 어머니를 찾아와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하며 유리 항아리를 주는 것이다. 아기 진감은 태어나서 울지 않음으로써 '소리를 녹이고 말이 없는 도의 싹'을 드러냈다. 7, 8세가 되자 나뭇잎을 향으로 삼고 꽃 공양을 올렸다. 자주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서는 해가 저물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집이 가난하여 생선 장사를 하며 부모를 공양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무덤을 만들어 길러주신 은혜를 다 갚았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신감(神鑑)대사를 만나는데 대사는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만났구나"라며 전생을 환기했다. 숭산 소림사 '유리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 '유리 항아리' 태몽이 마침내 입증된 셈이다.

적인(寂忍, 785년)선사의 태몽은 향로를 든 호승(胡僧)이 어머니의 침상으로 찾아오는 것인데,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반드시 법을 지닐 아들을 얻어 마땅히 국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적인선사는 강보에 싸여 있을 때부터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한 곳에서는 고요했다. 노린내나 비린내를 맡으면 피를 토하고 짐승 죽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했다. 앉을 때는 결가부좌를 하고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는 반드시 합장을 했다. 출가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떤 장애도 없었던 것 같다.

보조(普照, 804생)선사의 태몽은 하늘에서 둥근 해가 어머니 배를 쬔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그 좋은 인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기와 술을 금하고 계율을 지키고 삼보를 섬기면서 태교에 충실했다. 태어난 아기 선사는 체구가 컸고 기색이 윤택했다. 치아가 고르고 금발이 눈을 끌었다. 갓 난 때부터 '세속을 떠나자'는 뜻이 있었고 7, 8세가 되어서는 세속을 버리고자하는 뜻이 분명해졌다. 부모는 부귀나 재색으로 아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고 여겨 출가를 허락했다.

법경(法鏡, 879생)대사의 태몽은 홀연히 '상서로운 꿈'을 꾼 것이다. 잉태를 확인한 어머니는 정념(淨念)을 닦으며 오신채와 비린내 나는 고기 등을 일절 금한다. 태어난 아기 대사는 법상(法相)을 지녔고 보리심을 품었다. 글을 읽을 때는 다섯줄을 한꺼번에 읽어가는 능력을 보였다. 티끌세상을 여의고 출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부모에게 출가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어 허락했지만 눈물을 보인다.

요컨대 진감국사의 경우에서는 신비한 태몽에서 '은사의 만남과 인가, 구족계 받음'으로 나아가는 서사의 선이 부각됐다. 적인선사의 경우는 유년 때의 특별한 행동이나 자비로운 불심이 부각됐다. 보조선사의 경우는 태몽 이후 계율을 지키고 태교에 온 정성을 다 들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 또 세속을 떠나가려는 선사의 마음을 부각시켰다. 법경대사의 경우도 태몽 이후 어머니의 정성어린 몸가짐을 강조했고, 법경대사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강렬한 탈속의 마음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출가 과정에서 부모가 눈물을 보인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것은 태몽에서 출가로 이어지는 이음새에 틈이 생겨난 것이라 하겠는데, 조선이나 근대기 선승의 출가 동기가 다양해질 것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반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영가의 작용은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 초보에서 실전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 · 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 · 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탱)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 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